

출장 결과 보고서

□ 출장목적 : 캐나다의 장기요양 관련 정책의 통합 논의와 요양과 보편적 의료서비스의 통합과정 논의

□ 출장자 : 선우덕 연구위원, 이기주 연구원

□ 출장기간 : 2014년 10월 27일 ~ 2014년 11월 1일

□ 출장 지역 : 캐나다 토론토

□ 과제명 : 노인 장기요양서비스 사업군 재정사업 심층평가

□ 일정별 활동 내용

	방문기관	주요 면담자	활 동 사 항
2014/10/27 월요일	온테리어주 건강장기요양부 (ministry of health and long term care)	Fatima Ferreira	캐나다 장기요양 정책의 특징 및 합의
2014/10/28 화요일	Toronto Central CCAC(communitary care access center)	Laura Baker 외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 제공
2014/10/28 화요일	Belmont House	Donna Locke	보훈 입소자의 재정 부담 및 추가 급여 대한 논의, 입소자의 건강상태 유지 및 기타 프로그램 확인
2014/10/29 수요일	Christie Garden	Grace Sweatman, Heather Jannes	캐나다의 요양시설 병상 유지 및 민간시설 전환 과정 논의 및 시설 견학
2014/10/30 목요일	Castleview Wychwood Towers	Barvara Sullivan, Linda Jackson 외	캐나다 Personal Service Worker의 이수 과정 및 현장 중심의 연구 체계 논의, 시설 견학
2014/10/30 목요일	Torrent Long-Term Care Homes & Service	Nancy Lew	공공운영기관의 특성 및 체계에 대한 논의, 시설견학

캐나다의 장기요양 서비스

- 장기요양정책은 규정화된 이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시스템이 아니라, 기본적인 원리로부터 도출된 논리에 의해서 환경주체인 사회의 변화에 대응해 가는 것임
- 현재 캐나다는 장기요양의 중심을 질병상황의 치료와 사후관리가 아니라 기능저하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환자의 환경적응을 도와주는데 있음
- 캐나다의 모든 주 정부는 독자적인 장기요양시스템을 개발, 운영한 결과 각 주 정부가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8가지 기본적인 방향이 나타남
 - 건강에 대한 폭넓은 정의
 -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 Community Care의 중시
 - 정책결정에 대한 시민참가
 - Community의 존중
 - 인적자원계획
 - 의사수의 삭감과 성과불의 재검토
 - 정보시스템의 개발과 Technology Assessment 및 의료보전에 대한 연구

□ 장기요양의 구분

- 연방정부는 1973년 장기요양을 위한 시설Care를 5개 단계로 구분하여 기준을 제시 하였고, 각 주에서는 연방정부의 기준을 근거로 독자적인 Care 단계를 설정한 시설이 배치함
- 연방정부에서 제시한 5개 단계
 - Personal Care : 주거 및 식사에 관해서 비전문직 의료관련종사자에 의한 보호가 필요한 신체적인 기능장애를 가진 자들에게 사회적·레크레이션적인 활동을 통하여 일상생활을 보조하는 개인적 Care 단계
 - Intermediate Care : Personal Care에 추가하여 일상적으로 전문적인 간호가 필요한 Care 단계
 - Extended Care : 24시간 체제로 훈련된 기술 및 지식과 경험을 가진 간호서비스가 제공되고 계속적인 의학적 관리가 요구되는 단계
 - Rehabilitation : 활동성에 관해서 계획되고 집중적인 기능회복을 위한 재활훈련이 필요하면서 연령에 관계없이 신체적으로 부자유스러운 자들에게 필요한 일상생활 및 직업상의 활동에 관한 활성화 및 재활훈련의 단계
 - Acute Care, Inpatient Care and Outpatient Care : 급성기 외래와 입원의 단계

□ 온타리오주 정부의 장기요양정책

- 온타리오 주의 장기요양서비스의 발전 현황을 살펴보면, 1970년대에는 시설 중심으로 서비스가 진 행되어 왔음. 하지만 많은 재정이 소요되었고, 특별한 성과를 보이지 못함에 따라 80년대부터는 고령 자들이 살아온 지역사회에서의 지속적인 생활(Return to Community)하는 것으로 정책 방향이 변 화하였고, 현재까지 지역사회에서의 의료 및 생활지원서비스의 추진시기
- 장기요양서비스를 위한 기본방향
 - 근면한 개인의 존중과 자립
 - 장기요양보험의 조정과 community에서의 Care의 강조
 - community 지향, 건강증진, 관련시설의 통합 등
- 장기요양서비스의 기본원리
 - 노후는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이라는 것 라는 목표로 개인의 존엄·안전·자기결정으로 이루어짐
 - 지역사회 속에서 가능한 한 재택생활을 하고 그 후 지역내의 group에서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 함
- 장기요양서비스의 정책수립시 고려사항은
 - 의료와 사회의 양면적인 관계
 - 시설 care와 community service care간의 균형상의 문제
 - 서비스 공급자로서의公私의 문제
 - 비공식 조직과 공식조직에 의해 제공되는 care에 대한 책임
- 장기요양서비스의의료시설의 기본방침은
 - 시설수용형에서 community로의 지향
 - 온타리오주에서는 너싱홈 기관의 수 및 병상을 주정부차원에서 관리하고 있음. 이에 따라서 2000년대 초반에는 입소시설의 병상을 거래하는 것이 가능했으며, 병상을 구입한 시설이 생겨 났고, 매도한 시설은 리타이먼트홈 등으로 전환이 가능했음.
 - 이러한 배경에는 너싱홈까지 입소하기에 많은 시간이 필요했는데, 리타이먼트홈 등과 같이 운영 하는 복합시설의 경우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너싱홈으로 이전이 필요했지만, 가능하지 않았 음. 이러한 불만을 가지고 주정부의 정책과는 독립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시설의 욕구가 증가 하였음.
 - 현재는 이러한 병상 임대 쉽지 않음.
 - 대규모시설에서 소규모시설로 지향
- Ontario주의 경우에 장기요양(Long term care)정책이 정부의 주도하에 고령자의 자기결정 중시와

존엄성을 존중하고 생활의 안정성 확보를 점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온타리오주 정부에서는 노인의 요양시설을 4가지로 구분하고 있음

- Homes for the Aged

- 시군구 또는 비영리조직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시설에서 환자에게 주거, 식사, 간호, 의료, 지역과의 교류 등을 포함하는 생활의 場을 일시적 내지 장기적으로 제공하는 시설. 이 시설에는 혼자서 생활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입소함

- Nursing Homes

- 영리와 비영리의 경영주체로 운영되고 개인단독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자들에게 장기간의 주거, 식사, 간호, 의료, 사회와의 교류를 제공하는 시설. 입소자는 Homes for the Aged의 환자로 크게 차이가 없는 것이 많지만, 비교적 고령자들이 입소하고 전문적인 간호보조가 필요한 경우가 많음

- Retirement/Rest Homes

- 민간 운영주체가 많고 시설규모도 다양하며 200병상을 초과하는 곳도 있으며, 이 시설은 퇴직 후의 인생을 충실하게 보내기 위한 시설이라고 할 수 있음

- Homes for Special Care

- 주립정신병원을 퇴원한 환자에게 지역 속에서 간호 또는 숙박을 제공하는 시설

○ Ontario주의 Home Care Program

- 「질병 또는 신체에 장애가 있는 주민」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와 생활의 지원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용자의 본인부담은 보편적 의료서비스에 따라 전혀 없음
- 병원과 Home Care 또는 Nursing Home을 연계하여 운영하는 효율적인 장기요양 Program임
- Home Care Program을 분류하면 Medical Entry Model(의료서비스 포함)과 Social Entry Model(Home support 중심)것으로 구분하는데 Ontario주는 전자라 할 수 있음

□ 캐나다 지역사회중심의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의 핵심주체인 CCAC의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음.
(요약)

- CCAC에서 정보제공, 자격요건 결정, 필요 서비스 상담, 서비스 신청, 대기자 관리,
→ (우리나라) 노인과 가족이 직접 정보를 검색하고 신청하는 시스템
→ (우리나라) 자격결정은 건보공단, 이외는 주민센터
- 가능한 재가돌봄서비스 중심, 학교내 정신건강, 중독 등의 서비스도 제공 (노인, 장애인, 청소년)
- 보건서비스 중심의 다학제간 접근: 간호사, 영양사, 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 주요서비스
 - 재가돌봄: 재가돌봄, 응급간호, 호스피스 등
 - 지역사회돌봄: 식사배달, 가사지원, 이동서비스, 안부방문 등
 - 돌봄주거: 주간보호, 단기보호, 은퇴자집, assisted living(고위험 노인) supported housing(기능장애노인)
 - 장기요양시설: 코디네이터가 다면평가 실시, 최소 월 160만원정도

- CCAC는 노인돌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첫 번째/최일선 기관임. 거주지역에서 이용가능한 돌봄서비스 종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에 개인을 연결시킴 ¹⁾
 - CCAC는 재가요양서비스와 정부의 지원을 받는 가정과 지역사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the Ministry of Health and Long-Term Care에 의해 1996년에 설립됨.
 - CCAC는 의사, 병원팀, 다른 보건돌봄 제공자들과 협력하고 있음.
 - CCAC는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도록 돕기 위해 건강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 등에 대한 서비스를 연계함.
 - 직원들은 특별한 필요가 있는 학령기 아동 및 자신의 집에서 거주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정보제공, 전문서비스, 개인지원서비스, 가사서비스를 연계해주고 있음. ➡ 정보제공, 서비스 연계
 - 서비스 선정여부를 결정하고, 주간프로그램, support housing, assisted living program, 만성질환 케어, 재활시설, 장기요양시설의 허가/입소에 대한 make arrangement. ➡ 서비스 수혜여부 결정, 서비스 내용 결정?
- CCAC의 역할
 - 필요 확인, 필요 및 개인 상황에 맞는 옵션 탐색
 - 정부지원서비스에 대한 자격요건 결정
 - 거주지역내 서비스공자에 대한 정보 수집(재가, 지역사회, 시설 케어)
 - 주간 프로그램, support housing, assisted living program, 만성질환 케어, 재활시설, 재가 장기요양에 신청 접수 지원

1) The Ministry of Health and Long-Term Care 홈페이지 (Ontario)

- 서비스가 어떻게 전달되는지 알아내서 서비스 배치
- 재가 장기요양돌봄 신청. 필요한 경우, 대기자 명단에 올려놓음.

○ 서비스는 모두 무료임.

○ CCAC²⁾

- 재가서비스 제공과 특화된 지원서비스를 포함한 지역사회 돌봄을 연계(coordinating)를 통해 가능한 오래 집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
- 집에서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울 경우,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 온타리오주에 14개 CCAC가 운영 중임.
- 건강 및 장기돌봄부(the Ministry of Health and Long-Term Care)를 통해 지역건강통합 네트워크(Local Health Integration Networks)에서 재정지원 받음. 이 말은 CCAC의 조언과 서비스는 OHIP에 의해 커버된다는 의미임(?).
- 센터와 직원: 노인의 필요를 사정하고, 돌봄의 자격요건을 결정하고, 질문에 답하고, 개별 욕구에 부합한 맞춤형 돌봄계획을 수립함.
- 간호사, 치료사, 사회복지사, 등록된 영양사, 작업치료사, 언어 치료사, 개인지원워커 등의 건강-돌봄 전문가들이 돌봄 및 지원서비스를 배치(arrangement)함.

○ a Family Doctor 찾기

- 온타리오 안에 family doctor가 필요하면, Health Care Connect가 도와줄 수 있음.
- 현재 1차 돌봄 제공자가 없어야 하며, 온타리오 건강카드를 가지고 있어야만 함.

○ 통계 (2012/13)

- 온타리오 주: 643,000명 이상에게 서비스 제공
 - 532,000명의 환자에게 재가돌봄(care at home) 제공
 - 318,000 노인들이 재가돌봄을 받도록 지원
 - 82,000명 아동이 학교에서 보건서비스(health services)를 받도록 보장
 - 25,000명에게 재가 임종(end-of-life) 돌봄을 지원

- CCAC는 온타리오 전역의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 돌봄을 제공

○ Care at Home

- 재가돌봄은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를 가진 아동과 성인, 그리고 퇴원 후 개인지원이 필요한 환자도 대상임.
- 재가돌봄서비스(Home Care Service)
 - CCAC는 엄격한 과정을 거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기관과 연계하고 있음.
 - 내용: 간호(nursing → specialized nursing care), 개인지원(목욕, 옷입기 등),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사회복지, 영양상담, 의료기구 및 장비 지원, 의료 및 사회서비스 관련 정보 및 의뢰

2) healthcareathome.ca

◦ Specialized nursing care

① 응급간호(Rapid response nurses)

- 병원에서 가정으로 전환기에 있는 고돌봄 욕구를 가진 성인과 아동을 지원.
- 단기간 집중 지원 프로그램
- 내용: 퇴원후 24시간 안에 가정 방문, 처방(medication) 검토, 포괄적인 간호 사정, 환자 및 가족 교육(퇴원 계획, 질병과 증상 이해 등), 진찰 일정 확인 등

② 호스피스 완화 돌봄간호(Hospice palliative care nurse practitioners)

- 임종을 앞둔 환자를 위한 연결, 지원, 돌봄을 제공.
- 주로 간호사들이 서비스 제공.
- 내용: 호스피스 완화돌봄의 조기 진단, 집에서 직접적인 돌봄제공, 고통 및 증상 관리, 의뢰 등

③ 학교에서의 특화된 간호 돌봄: 정신건강과 중독 간호

◦ 대기시간 (2012/13 기준)

- 지역사회에서 의뢰된 50% 환자는 5일 이내에 재가서비스를 받았고, 90%는 33일 안에 서비스 받음.
- 병원에서 의뢰된 환자의 50%는 하루 이내에서 서비스를 받고, 90%는 6일 이내에서 서비스를 받음.

○ Care in the Community

- 식사배달 및 dining programs
- 가사지원
- 이동서비스
- community dining
- friendly visits

○ Supported Living

- CCAC는 노인이나 가족을 위한 몇가지 대안적인 생활환경(living arrangements)을 제공함.
- CCAC의 Care Coordinators는 지역사회내 다양한 프로그램을 알고 있으며, 개인에게 맞는 프로그램이나 주거를 선택 가능.

① Day programs: 집에서 생활이 가능하면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게 사회활동과 의미있는 활동을 제공. 가족은 휴식 가능

② Assisted living: assisted living programs은 고위험 노인에게 시설 혹은 집에서 개인지원서비스를 제공.

- 재가돌봄에서 제공하는 일상돌봄보다는 더 많은 서비스가 필요하지만, 의학적 모니터링이나 수퍼비전은 필요 없는 노인 대상.
- 보다 빈번하고, 비정기적인(unscheduled) 지원과 고강도의 지원이 필요한 노인 대상.
- 개인돌봄, 가사지원, 응급지원시스템(emergency response system).
- assisted living은 다양한 세팅에서 제공 가능: 노인 아파트(seniors apartments), 사회적 주거빌딩(social housing building), 자신의 집도 가능.

③ Supported Housing

- 신체적 혹은 인지적 장애, 정신건강 문제, 에이즈를 가진 노인 대상임.
- 특별하게 설계된 건물이나 아파트, 공유 주택(shared houses), 개인 아파트 등에서 주거와 지원서비스 제공, 직원들은 24시간 서비스 제공 가능함.
- supported housing은 비영리기관(지방정부, 주택협동조합, 종교단체, 노인단체, 서비스 클럽, 이민자 그룹, 서비스 제공기관 등)에 의해 소유되고 운영됨.

- 일반적으로 rent charge는 지불 능력에 근거하거나 시장 가격수준으로 주택국(the ministry of housing)으로부터 지원받음.

④ Retirement Homes

- 사적으로 소유되고 운영되는 주택으로 거주노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돌봄서비스, 사회활동 등을 제공함.
- 독립적으로 생활이 가능한 노인에게 적합

⑤ Sort-stay care

- Respite care: 돌봄제공자가 휴가를 가거나 휴식이 필요할 때 장기요양 home에서 단기가 거주
- Convalescent care(회복기 돌봄): 질병이나 수술에서 회복중인 노인 대상

○ Long-Term Care

-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 돌봄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노인을 대상.
- 내용: 간호와 개인돌봄, 일상생활 지원, 치료와 약물, 식사, 세탁, 사회활동
- 순서: CCAC의 코디네이터와 상담, 알맞은 시설 선택.

- 장기요양시설은 공공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지역, 비영리 기관이나 영리 기관에 의해 운영됨.
- 장기요양시설은 캐나다 건강 및 장기요양부가 허가를 내주고 감독함. 지역은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하기 위한 특정 법률과 규정을 가지고 있음. CCAC는 온타리오에 있는 장기요양에 대한 자격을 사정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음.

○ 입소절차

- CCAC 돌봄 코디네이터에 의해 다차원 평가를 받음.
- 최대 5개까지 입소시설에 신청 가능함. 대기시간은 기관에 따라 함. 신청한 기관은 대기시간이 얼마나 될지 알려줌
- 기관이 연결되면, CCAC 코디네이터가 연락을 할 것이고 입소 동의를 위한 24시간이 주어짐.
- 비용: 월 약 160만원(2천불)

비용을 지불한 연간소득이 충분하지 않다면, 정부가 지원가능(basic room에 한해서)